# 강한 지재권 창출을 위한 IP-R&D 전략 활용

정지운*, 이민우
한국지식재산전략원
(pnoid@kipsi.re.kr*)

통상적으로 연구개발이 완료된 이후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토대로 특허를 출원한다. 그러나, 이러한 방식의 특허출원은 타 연구그룹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온전한 권리로 보유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. IP-R&D 전략은 환경/특허분석과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IP획득전략수립으로 구성된다. 환경/특허분석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한 시장, 정책, 경쟁업체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분석을 수행하고 더불어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한 특허, 논문 등 문헌자료를 조사분석하게 된다. 특허포트폴리오 구축단계에서는 환경/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유망기술분야를 도출하고 현행 특허포트폴리오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장래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.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IP획득전략수립 단계에서는 경쟁 연구그룹의 핵심특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, 장래 유망한 세부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창출 및 권리 획득 방안을 마련한다. 또한 구축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한 미래의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. 이와 같은 IP-R&D 전략을 활용하면 경쟁 연구그룹의 핵심 특허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점된 권리와는 다른 장래 유망한 기술분야의 특허권을 먼저 도출하게 됨으로써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. 또한 선행 특허권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세부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중복연구 등이 방지되고 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.